



11월엔 한국영화였다 12월엔 할리우드가 침수한다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등 블록버스터 대거 개봉

비수기인 11월 극장가에서 한국영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류승완 감독의 '부담거래'가 200만명에 육박한 관객을 동원하고 있으며 11일 개봉한 강동원·고수 주연의 '초능력자'는 80%가 넘는 예매율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12월은 상황이 다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대거 개봉을 준비중이다.

역시 가장 기대를 모는 작품은 '해리포터' 시리즈다.

12월 16일 개봉하는 이번 작품은 시리즈의 완결편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이다. 2부는 오는 2011년 여름 3D로 개봉될 예정이다.

대니엘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 등 전작의 출연진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며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의 메가폰을 잡았던 데이트 에



이즈 감독이 연출했다.

답블도어 교수 죽음 이후 의지할 곳 없는 해리포터 일행이 도망자 신세가 돼 볼드모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죽음의 성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또 다른 판타지 영화인 '나니아 연대기'는 일주일 먼저 관객들을 만난다.

'나니아 연대기 :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망망대해



위에서 펼쳐지는 나니아 세계 속 음모와 맞서 싸우는 페번시가 남매 에드먼스와 루시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루시의 사촌 유스터를 비롯해 이제는 왕이 된 캐스피언 왕자, 말하는 사자 아슬란 등도 등장한다.

12월 2일 개봉하는 '워리어스 웨이'(The Warrior's Way)는 장동건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

이다. '워리어스 웨이'는 칼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세계 최강의 전사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야기를 그린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로 미국에서도 와이드



개봉할 예정이다.

이승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케이트 보스워스, 제프리 리시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특히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에 참여한 스타들이 가세했으며 제작비만도 5000만 달러에 이른다. 오는 22일 여주인공 케이트 보스워스가 내한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어리스트'(12월 9일 개봉)는 조니 데프와 안젤리나 졸리의 만남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작품이다.

실연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한 남자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와 달콤한 동행을 한 후 숨막히는 추격과 위험한 여정에 휘말리게 되는 액션 스릴러물이다.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타인의 삶'을 만들었던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 마르크 감독의 할리우드 입성작이다. '유주얼 서스펙트'의 각본을 썼던 크리스토퍼 매커리의 참여도 기대감을 높인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장기를 발휘해온 제니퍼 애니스턴이 주연을 맡은 '스위치'(12월 2일 개봉)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원하는 뉴요커 캐시가 인공수정 임신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파티에서 친구 웨일리와 대형사고를 친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영화다.

남자 주인공은 '인 디 에어'의 제이슨 베이트먼이다.

그밖에 2003년 미국에서 있었던 '리크 게이트'를 소재로 한 '패어 게임'도 관심을 끈다. '리크 게이트'는 전 이라크 대사 조셉 윌슨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모아 줬다고 날조한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다.

나오미 왓츠와 연기와 배우 손 퀘이 조셉 윌슨과 그의 부인이자 CIA 요원인 발레리 플레임을 연기한다. '본 아이덴티티'의 더그 라이번이 감독을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초능력자



'전우치', '의형제'로 연속 흥행 흥행을 날린 꽃미남 강동원과 군 제대 후 깊은 연기를 보여 주고 있는 고수의 만남으로 제작전부터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초능력자라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점도 신선하다.

하루 하루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전당포에서 일하는 규남은 어느 날 돈을 훔치려 은 초인과 맞닥뜨린다. 초인은 눈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 하지만 규남에게만

강동원·고수 만남 자체로 화제 눈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초인 그에 맞서 홀로 싸워야하는 규남 두 남자의 피할 수 없는 대결

은 이 능력이 통하지 않고, 규남은 초인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펼쳐 나간다.

천적 관계인 두 사람은 쫓고 쫓기며 결국 과격으로 치닫는데..

봉준호·김지운 감독의 연출부 출신인 김민석 감독의 데뷔작이다. 변희봉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규남의 친구로 나오는 터키인 알파가 나 출신 비바가 웃음을 전한다.

만화를 연상시키는 영상과 독특한 유머 코드로 눈길을 끈다.(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JET 초등 영어시험 ETS TOEIC Bridge

광주/전남 초·중등 영어학력평가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광주, 전남지역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참가신청

신청기간 : 2010년 11월 15일 ~ 12월 9일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참조

시상내역

최종 수상인원
1. 뉴질랜드 1개월 어학연수 20명
2. 1천만 원 상당 장학금 수여 105명(초등69명, 중등46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kwangju.co.kr)

응시일자

2010년 12월 19일(일) (09시50분)

응시장소

광주·전남 지역 지정 고사장(추후 홈페이지 게시예정, 참조)

응시료

JET : 22,000원(VAT 포함)
TOEIC Bridge : 29,000원(VAT포함)

대회요강

구분	참가 자격	수상 자격	비고
초등부 (JET)	초등부	JET 초급부문: 1 ~ 2학년 JET 중급부문: 3 ~ 4학년 JET 고급부문: 5 ~ 6학년	- 동점자 처리기준 - · 1순위: Writing 성적 순으로 최종 심사 · 2순위: 연소자 우선(생년월일 낮은 순) · 3순위: 해외체류 무 경험자 우선
	중등부 (TOEIC Bridge)	중학교 1학년 부문	
		중학교 2학년 부문 중학교 3학년 부문	

· 초등, 중등부별 참가 자격에 학년 제한은 없으나, 수상은 위 표에 나와 있는 해당 학년만 자격이 주어짐.
· 수상자격을 없는 참가자에게도 성적분석표(참가자 전원), 합격증 및 인증서(합격자에 한함)가 수여됨.
· 시상은 각 부문별로 학년별 시상을 기본 원칙으로 함

문의 및 안내 062)220-0555 광주일보(www.kwangju.co.kr) 홈페이지 참조
- 학교별 단체 접수 시 고사진행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주최. 광주일보 / 한국 TOEIC® 위원회 시행. 한국 TOEIC® 위원회 후원. KATE 한국영어교육학회 / YBM Sisa.com

